

벤처 관련 정책

● **해양중소·벤처기업의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www.mltm.go.kr)는 시장이 원하는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된 기술을 신속히 사업화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09년 해양중소·벤처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0억 원을 투입, 핵심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초기단계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의 사멸률이 높은 것을 비유
이를 위하여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약 10개 내외)을 중심으로 기업당 2년간 4억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공고 내용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 세부 내용은 3월 5일부터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사업계획은 현장·경영평가 및 서면·공개발표평가를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적 성공’을 ‘사업적 성공’으로 연계시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해양산업 성장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기청·중진공, 온라인 ‘원자재 재고 매매장터’ 개장**

원자재 재고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덜어주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에겐 생산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www.smba.go.kr)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 www.sbc.or.kr)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과잉재고를 정리하고 이러한 잉여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적정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원자재 재고 매매장터(온라인)’를 개장하고 3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시작한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현장실사시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재고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재고가 기업의 운전자금 부족을 통한 부실유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원자재 재고

매매장터’를 개설·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매장터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기업간 원자재 매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중진공의 기업DB(10만개)에 2주단위로 원자재 매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해외 바이어 DB(분야별, 업종별)를 통한 기업간 매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특허청, 수수료 감면 등 출원지원 정책 지속 추진**

특허청(청장 고정식, www.kipo.go.kr)은 올 1월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가 출원인의 출원서류 작성을 콜센터 전문상담사가 원격 지원해 주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09.3월) 결과 88.9%가 만족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도 1월 71건에서 2월 134건(88.7% 증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1월 소기업에 적용되던 수수료·청구료 70% 감면 혜택의 중기업으로의 확대(50% → 70%), 중·소기업이 출원서류별로 매번 제출하던 감면 증빙서류를 1회 제출로 최대 4년까지 효력을 인정해주는 정책들이 시행 초창기부터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수수료·청구료 감면 확대로 올 2월까지 중기업이 출원한 3,168건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에 이른다. 감면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해서 올 2월까지 중·소기업이 제출한 출원서류 7,396건이 혜택을 받았으며, 연간 7만 건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08년 중·소기업이 제출한 출원서류 : 74,953건)

특허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출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객 중심의 시스템 개선, 수수료 등 감면,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염두에 둔 정책들로서 향후에도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각종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 연초부터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출원서류 작성시 발생한 각종 오류를 출원인 스스로 쉽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을 올 6월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 **중기청, 창업투자회사 진입요건 대폭완화 추진**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www.smba.go.kr)이 주최하고 한국벤처투자(대표 김형기, www.k-vic.co.kr)가 주관한 ‘벤처캐피탈 리스

크관리자 워크숍'에서 중소기업청 조주현 벤처투자과장은 창업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창투자 등록을 위한 설립요건으로 70억 원의 납입자본금과 2~3인의 전문인력 확보가 요건이다. 하지만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동이 창투사의 자체 재원보다는 타인의 자산을 모집하여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투자시장의 성숙으로 자본금 규모를 재정건전성과 활발한 투자 활동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납입자본금 요건을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구 월

◎ ETRI, 국내 최초로

센서 인터페이스 내장형 센서 태그 및 칩 개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 www.etri.re.kr)는 11일, 국내 최초로 기존 수동형 RFID 태그에 암호 인증 및 센서 인터페이스(회로)를 내장하여 보안 및 인증 기능, 재사용 방지 기능을 두루 갖춘 '센서 인터페이스 내장형 유·무선 수동형 센서 태그 칩' 두 종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자제품의 경우 전자 제품 조립에 비품 재료를 포함시켜 불량 제품을 양산하여 브랜드 가치 손상을 입혀 왔으나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제품 조립 단계부터 센서 태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불량 제품이 양산 되지 않도록 할 때에도 다른 태그로 위변조하는 경우 제품의 정확한 진품 여부를 판별해 낼 수 없었다.

하지만 ETRI에서 개발한 "센서 인터페이스 내장형 무선 RFID 칩 및 유선 보안 센서 태그 기술"은 물품을 위조, 변조의 목적으로 태그를 떼거나 조작할 경우 센서의 값이 변동되어 초기의 센서의 값과 일치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하여 리더기를 통해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기존의 능동형 센서 노드는 배터리의 크기와 수명 제약 때문에 초소형화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ETRI는 배터리 없이 센서 인터페이스 모듈을 내장한 수동형 One칩 RFID 센서 태그와 칩의 개발로 초소형화(1.2 X 1.2mm²), 저전력화, 저가격화를 실현하여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 기계연,

차체 고속 로봇 레이저 용접시스템 기술 개발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이상천, www.kimm.re.kr) 지능형생산기계연구본부 서정 박사팀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지능로봇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주)성우하이텍과 공동으로 차

세대 차체 용접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로봇기반 원격 고속 레이저 용접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현대중공업(주)에서 지원한 제조업용 로봇에 스캐너와 레이저를 장착한 기술로 작업자가 원하는 용접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레이저 용접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참여기업인 (주)성우하이텍의 이문용 기술연구소장은 "기존의 저항점(Spot) 용접방식은 차체 부품 용접 시 활동영역이 한정되어 불편하고, 다량의 단품 용접으로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지만, 이번 기술은 자동차의 Side Inner, Side Outer와 같은 대면적 부품의 고속 용접이 가능함에 따라 용접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기존방식의 경제적·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술은 1999년에 기계연에서 개발하여 상용화한 TWB(Tailor Welded Blank) 레이저 용접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차체 경량화와 고강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서정 박사는 "이번 기술개발로 국내 원격 레이저 용접용 로봇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 중 시운전을 통해 생산라인에 적용되면 제품 생산성이 5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울산시,

중소·벤처기업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술정보 인프라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연구기획부터 제품생산까지 단계별로 기술문헌 정보 및 특허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제공하는 '중소 벤처기업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지역소재 중소기업 50개 사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이 투입된다.

다만 글로벌스타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국가 R&D사업 및 기술인증 신청업체는 우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지역중소벤처기업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정보 조사·분석,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문헌(특허 등) 원문 제공, 기술정보 활용 상담 및 현장 맞춤형 교육,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한 산업재산권 활동 자문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23일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정보망을 갖추고 있고, 미국 등 외국의 주요 과학기술정보망과 데이터 뱅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업무협약(서면)을 체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은 해당 기술의 트렌드, 경쟁기술 현황, 핵심기술 내용 등을 파악·대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개발된 기술은 기업자산화로 권리획득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KISTI의 전문가를 통해 기술과제별로 업체와 상담을 통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시 상담채널을 구축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등 해당 기업체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인천시, 강력해진 지식재산권 지원시스템 시행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식재산센터(센터장 변천수)는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와 경제글로벌화 그리고 급속한 지식사회로의 전환기에 지식재산권 지원이 녹색성장산업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보다 강력해진 지식재산권 지원시스템을 가동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작년 국내최초로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운영개시(2008.3)

하였으며 지식재산진흥 조례를 제정(2008.8)하여 작년 특허청 평가에서 우수사업기관 선정(2008.12)되어 사업비를 증액 받는 등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허분쟁지원센터와 24시간 특허콜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는 2009. 3. 26일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지역 변리사, 관련 대학교수, 유관기관(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 지역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위원회(특허청장 명예위원 위촉)를 발족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앞으로 인천시의 모든 지식재산 지원계획과 특허 및 산업재산권 관련 지원 제도를 심의 및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지식재산센터는 24시간 내내 특허민원 상담을 담당할 특허콜센터도 올 상반기 중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 경기도수출기업협의회 발족

경기도 수출기업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수출 활로 모색에 나섰다.

도는 도내 수출기업 200여 개 사로 구성된 '경기도수출기업협의회'가 24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적인 수요 감소, 급격한 환율변동 등 환 불안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가,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며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내 수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의회 발족을 추진해왔다.

협의회는 24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수출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협의회 구성에 따라 우선 수출기업 간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협의회는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세미나, 조찬포럼, 수출성공사례집 등 수출시장과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생산, 공유하고 기업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KB국민은행,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협약식 가져

중소기업청과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B국민은행은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초보기업들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중소기업육성 500-500 프로젝트』협약식을 가졌다.

『수출중소기업육성 500-500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청이 선발한 500개의 수출초보기업들을 협약금융기관들이 총력 지원해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로 총 4년이 소요된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프로젝트에 KB국민은행 등 3개 협약기관은 500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는 수출신용보증서를 우대 발급하고 보증료와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육성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KB국민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동수)은 수출 Nego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저리 지원하며 포페이팅 등 육성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주거래은행 역할을 담당하여 4년여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최대 8천억 원의 원화 무역금융과 미화 20억 불의 수출 Nego를 낮은 금리로 지원하며 환율우대, 예금금리 우대 등 은행거래 전반에 대해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전담관리자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 외환은행, 기업 전용 '기업파트너 적금' 출시



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1.0%까지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기업파트너적금』을 2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업파트너적금』은 매월 일정한 일자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가입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하고, 월 적립금은 1,000원 이상으

로 제한이 없다. 가입 시 기본금리는 23일 기준으로 1년은 2.2%, 1년 초과 2년 이하는 2.8%, 2년 초과 3년 이하는 3.0%이며, 추가우대금리는 신규가입 시 최고 0.4%와 적금 만기 시 최고 0.6%까지 제공되어 최고 1.0%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는 수출입실적, 월 적립금 1천만 원 이상, 우량 중소기업에게 항목당 각각 0.2%의 우대금리를 지급하여 최고 0.4%까지이며, 만기해지 시 우대금리는 수신거래 실적, 법인카드 사용실적, 가입기간 중 인하우스 बैं킹 가입 등 항목에 따라 각각 0.2%의 우대금리를 지급하여 최고 0.6%까지 지급하게 된다.

● 경남은행,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으로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은 파산, 부도, 휴폐업, 허위자료제출 기업 등을 제외한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또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요주의 이하 등급 기업, 연체대출 보유 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요주의 이하 등급 기업이 보유한 대출의 경우도 Fast Track 또는 워크아웃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의 조건변경통지서 상의 보증기일에 따라 결정되며,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1년 이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상 중소기업은 해당 대출의 만기연장 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과 갱신, 대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단, 한도증대 등에 따른 손실위험(exposure) 증가로 신용리스크가 클 경우에는 제외 된다.)